

200자 안내

포박자

葛洪 지음 / 張泳暢 편역

중국 진나라 때 사람 갈홍이 지은 책으로, '포박자'는 그의 또다른 호칭이자 그가 남긴 저서의 이름이다. 「포박자」의 내편 20권 가운데서 부분 발췌하여 엮은 이 책은 갈홍의 도교철학을 전해주고 있다. 의식을 초월한 자아의 영원한 생명주의를 중심으로, 도교를 분석, 비판한 내용을 담았다.

자유문고/A5신/274면/4000원

통곡하는 민족혼

安原田 지음

민족사관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상고사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재조명한 책. 저자는 한민족이 인류의 시원사와 접맥되는 민족 상고사를 그대로 간직한 유일한 민족이며, 태극정신과 황과정신으로 풍류문화의 신교사상을 전개시킨 민족임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민족정사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러한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 말살되어왔는지를 증명하고자 시도했다.

대원출판/A5신/438면/4500원

낮설은 얼굴들처럼

최옥경 지음

요절한 여류화가의 유고시집. 화산처럼 강렬한 색채감각의 화폭으로 유명한 고인이 '수많은 낮설은 인간들 속에 끼어 있는 또하나의 낮설은 인간'으로서 미국 유학시절부터 틈틈이 써둔 84편의 시를 함께 모았다. "일어나라, 좀더 너를 불태워라"고 외치며 한치의 양보 없이 자기 삶에 충실했던 한 여류화가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열린책들/A5신/146면/2500원

예수마음

이노우에 요오지 지음 / 鄭大植 옮김

「일본의 풍토와 그리스도교」「그리스도교의 일본화」 등의 작품을 통해, 사제로서 '동양인과 그리스도교'라는 과제를 꾸준히 탐색해온 저자의 신앙지침서.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믿음의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등을 차분하게 풀어나가며, 예수의 가르침이야말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又新社/A5/250면/3000원

中國投資 100問 100答

初保泰 지음 / 鄭奎珉 옮김

중국진출을 꿈꾸는 기업인들을 위하여 중국의 경제환경과 법적 원칙들을 문답형식으로 설명한 책.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외국투자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가 다년간 경제분야에 몸담으면서 쌓은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기업으로부터의 투자도입 개황, 中外합영기업설립방법 및 조직구성 등

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했다.

語文閣/B6/226면/3000원

겨울 속의 사람들

박기원 지음

1955년 단편 「귀향」으로 문단에 나온 이래 활발한 작품활동을 보여온 여류작가의 장편소설. 격동과 고난의 시대로 치칭되는 80년대 후반을 무대로 제각기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역사와 사회를 겨냥한 젊은 군상들의 모습을 조명했다. 원래는 월간 「동서문학」에 연재됐던 작품.

청한 / A5신 / 300면 / 3500원

티베트에서의 7년

하인리히 하러 지음 / 한영탁 옮김

오스트리아 출생의 세계적 등산가인 저자의 티베트 체류기. 히말라야 등반 중 2차대전의 발발로 영국군의 포로가 됐다가 수용소를 탈출, 히말라야의 험한 고산준령을 넘어 드디어는 티베트의 금단의 도시 라사에 이르기까지의 모험에 찬 여정과 라사에서의 기이한 체험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수문출판사 / B6 / 374면 / 4800원

불교사상의 새로운 발견1

한국불교사회교육원 엮음

불교와 사회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고자, 오늘날에 있어서의 불교사상이 갖고 있는 깊은 진리를 재조명한 책. 88년 6월부터 개최되어오고 있는 '민족불교학당'에서 행해졌던 강의들을 정리, 수록한 것으로, 「현대문명비판과 동양사상」(윤구병) 「원시불교의 현대적 재조명」

(최석호) 「삼법인과 변증법적 세계관」(법성) 등 다섯편의 글들이 실려 있다.

정토 / A5신 / 168면 / 2300원

화훼원에대백과

車健誠 지음

원에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수록한 백과사전. 식물의 생리·식물재배·화훼·선인장·동서양란·분재·테라리움으로 단원을 나누어 각각의 종류와 기르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양한 화보들을 수록했고 서술도 비교적 평이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五星出版社 / A5신 / 1090면 / 20000원

清韓論

O.N.테니 지음 / 柳永博 역주

1886년부터 90년까지 고종의 외교고문으로 활동했던 미국 외교관 O.N.테니가 88년 중국 상해에서 간행한 작품으로, 격동기에 처해 있는 중국과 한국의 움직임을 간결하면서도 명쾌하게 논술해 내려가고 있다. 영어 원문과 번역문을 수록했을 뿐 아니라 테니의 활동상, 「청한론」에 기술된 국제법이론과 독립국 문제 등 상세한 해제도 덧붙여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東方圖書株式會社 / A5신 / 256면 / 5000원

살아있는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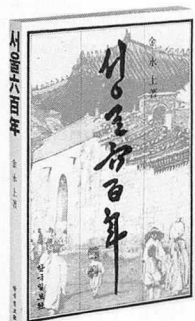
현정오, 이응신 편저

현직 고등학교(서울 인현고) 과학교사인 저자들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기 위해 펴낸 과학문제집. 저자들이 학교 내에서

화제의 책

서울六百年

金永上 지음



'서울600년'이라는 타이틀로 한국일보에 연재(1959)됐던 내용을 추려 묶은 서울에 얽힌 역사이야기. 조선왕조가 한양을 도읍지로 삼은 이래 600년 세월의 흐름 속에 문헌

사연들을 다채롭게 풀어보이고 있다.

한양 천도의 내력과 漢城 건설에 따른 4대문 4소문에 얽힌 역사, 鐘樓의 거대한 인경종소리로 못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절하던 시절,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의 옛갈린 회비와 그에 얽힌 사연들, 정치제도와 규모 등의 내용이 꼼꼼한 고증사진과 함께 담겨 있다.

북악기슭의 성삼문 집터와 인현왕후의 사연이 스며든 感古堂, 인왕산기슭의 俊秀坊과 鳧雲臺, 그리고 무악기슭에 흩어져 있는 크고작은 사적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찬란했던 서울의 옛 시절을 되돌아보게 한다.

서민의 애환이 서렸던 청계천과 수표교, 阿利水 한강의 유적 등 새로이 첨가한 내용도 당시의 사진, 시조 풀이와 함께 담겨 있다.

한국일보사 / A5신 / 336면 / 3800원

자료집

韓國日語日文學 研究文獻書誌

黃聖圭 · 李漢燮 엮음



1945년부터 1988년 6월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日語日文學관계 저서 및 역서, 석·박사 학위논문을 포함한 각종 논문들을 총괄, 정리한 목록집 「한국일어일문학연구문헌서

지」가 발간돼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책은 특히 국내 대학에 일본과가 생긴 지 25년여만에 나온, 거의 최초의 선행 연구업적 정리라는 점에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집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어일문학 관계 학회지를 비롯, 일문과가 설치된 대학들의 논문집, 그리고 그밖의 각종 간행물 및 인접분야의 논문집 등을 1년반 동안 조사하여 총 2천여 항목에 이르는 서지 목록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크게 '저서 및 역서'편과 '논문'편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분야별로 구분하여 목록을 배열했는데, 필자·저자명 가나나順을 배열의 원칙으로 삼았다. 작가론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이 된 작가를 중심으로 해당논문 및 저서를 한데 묶어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時事日本語社 / A5신 / 244면 / 5000원

‘과학퀴즈열차’행사를 마련하며 출제했던 문제들을 모아 수록했다. 비누막의 원리, 무지개가 하나로 보이는 까닭, 빛의 속도 등에 관한 재미있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답이 실려 있다.
청년사 / A5신 / 238면 / 3000원

서로 사랑할 때

이경식 지음

「사랑 이야기」 「새로운 생명」에 이어 세번째로 출간된 저자의 세번째 진료수기로서, 암환자들과 가족들이 죽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삶이란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자신의 경험과 함께 종교적인 시각에서 차분하게 조명하고 있다.

성바오로출판사 / A5 / 148면 / 1700원

삶의 창조

金宅洙 지음

부제 ‘나는 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군대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람과 가치관은 무엇이며, 병영에서 습득한 통솔력과 리더십이 제대 후의 인생경영과 조직관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밝혔다. 저자는 현직 사단장.

宇石 / A5신 / 238면 / 3500원

종교사회학

T.F. 오데아 외 지음 / 박원기 옮김

종교의 역기능 및 사회와의 갈등 등을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한 종교사회학 개론서. 종교적 경험의 문제를 비롯, 종교의 제도화에 따른 딜레마, 異端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접근

근, 세속화에 대한 종교의 반응 등을 폭넓게 서술함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인간적 의미를 깨우친다.

이화여대출판부 / A5신 / 190면 / 3000원

음악 365일(상·하)

三善淸達 지음 / 방동찬 옮김

1년 365일 동안 동서고금의 음악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한 소책자형 자료집. 음악가들의 출생과 사망을 비롯, 유명 樂曲의 初演 및 기타 에피소드 등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날짜별로 총망라했다.

세광음악출판사 / B6 / 각 200면 안팎 / 각 2000원

떠도는 넓은 언저리

김성동 지음

「만다라」의 작가 김성동씨의 아포리즘 모음. ‘아아 사랑, 눈내리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새가, 물이, 바람이 되고 싶었던 나는’ ‘비상을 꿈꾸는 어린 새를 위하여’ ‘아직 우리가 만들지 못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등 5부로 나누어 작가의 번민과 깨달음의 편린들을 보여주는 짧고 예리한 글들을 수록했다.

푸른숲 / A5신 / 304면 / 2800원

학술지

耽羅文化(제9호)

[논문]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兩親의 자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강창혁) ▲제주도 영어교육의 현황과 전망(김순택) ▲秋史 金正

喜의 漢文書翰考(양순필) ▲제주도 방언의 고찰(송상조) ▲제주도 高山里출토 隆起文도기(이청규) ▲갸시업 조사보고(강창언)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남석진) ▲제주도 유배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敎學 활동 연구(고창석·양진건) ▲제주도 성주풀이의 구성 및 장단의 연구(김은자)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 / B5신 / 338면 / 비매품

계간지

경제와 사회(89년 봄호)

[특집] 현대의 제국주의와 좌파 민족운동의 전개 ▲이탈리아공산당의 노선 분석(최장집) ▲칠레 민중연합의 성립과 좌절(이성형) ▲필리핀과 미국—온정적 제국주의와 자선적 동화정책의 실상(강정구) ▲미군정과 좌파의 노동운동(정해구)

[일반논문] 현단계 논쟁의 심화를 위하여 ▲전후 일본 자본주의의 자립—종속 논쟁(홍장표) ▲러시아에서의 농업개혁과 농업강령(이경숙) ▲민족문제의 계급적 관점(이진경)

[서평] 한국 농업—농민문제 연구의 과제(한도현)

[연구노트] 계급의 연구시각에 대한 재검토(이수인)

까지 / A5신 / 244면 / 3500원

靑少年(89년 봄호)

[현장연구] 청소년 활동과 이념씨클의문제(이준일)

[논단] 청소년 성교육의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김순오)

[특집I] 청소년문제 그 현주소 ▲최근 청소년

문제의 경향과 특성(김용숙) ▲인간성 측면에서의 청소년 비행(주진성)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청소년문제(표갑수)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범죄(정하성)

[특집II] 공통주제 「내가 보는 청소년 문제」 ▲국민의식이 절대부족이(여동구) ▲부모노릇과 청소년 문제(남석희)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문제(고규식)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 A5신 / 122면 / 비매품

창간호

한민족(제1집)

[특집]한민족의 기원 ▲한겨레의 뜻(손보기) ▲한민족의 뿌리(이홍규·박경숙) ▲한국어의 계통과 형성(최기호) ▲구·신석기시대의 종교신앙(이은봉) ▲한민족의 기원(좌담: 손보기·김방한·임동권·김병모·박성수·전경수)

[논문] ▲한국음악의 원류(송방송) ▲史觀論 비판(송기중) ▲민족관·異文化認識의 심층(김양기) ▲한국의 巫神圖(김태근) ▲상징의례에 대한 理氣哲學的 고찰(박정진) ▲일제식민사관과 황국사관(박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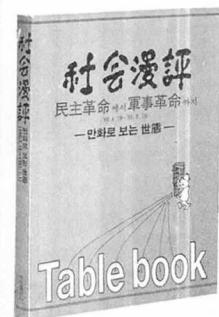
敎文社 / A5신 / 242면 / 2900원



이색출판

社會漫評

金星煥·金峰千 외 지음



2공화국 당시에 신문에 그렸던 시사만화와 하루하루의 주요 사건을 채록하여 담은 만평집. 1960년 4·19부터 61년 5·16혁명이 일어나기 전일까지의 사회상이 만평을 통해

정리되어 있다.

한국의 신문만화를 개척한 고바우 김성환 등을 비롯, 주요 일간지 시사만화가들의 해학과 기지가 담긴 한껏 마다에 그 당시 가장 핵심적인 사회상이 포착돼 있다. 그날 시사만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일지를 연감 및 자료집에서 발췌 수록하고 있다. 또 시대흐름을 알 수 있도록 주요 일간지의 기획 기사를 담아 당시 사회적 변혁에 대한 언론의 입장을 관찰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내 학생의 총궐기와 시민의 함세로 이뤄진 4·19의 혁명적 상황의 생생함과 함께, 사건의 연속으로 이어진 당시의 하루하루가 기록으로 증언돼 있다. 제2공화국시대의 사회환경을 시사만화를 통해 오늘의 상황을 재조명한 책.

學文出版社 / B5 / 352면 / 5000원

이색화집

山의美

김호근 엮음



김원·김종휘·김영재·오승우·홍재호·안영·김정·권순철·김진석·이상국·이상조 등 화가 11명의 山그림과, 화가들 자신 및 시인 김장호의 山에 관한 에세이

들을 함께 묶은 이색화집.

제각각 독특한 화풍으로 구현된 山의 아름다움을 통해 산이 지니는 모든 심미적 감각의 편린들이 잘 드러나 있는 한편, 산에 대한 애정의 심도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산이되 음악적으로 해석한 산이요, 리듬을 토해내는 산”이라는 김정희의 「정선아라리」를 비롯, 거친 운필로 두텁게 덧칠한 권순철의 「용마산」, ‘산의 속살’을 드러내는 오승우의 「황악산」, 풍부한 표정으로 언제나 생동하는 홍재호의 「설악산」, 이른 새벽 일출과 함께 깨어나는 안영의 「한라산」 등이 그 자체로서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名山列傳’적 면모를 드러낸다.

권말에는 따로 헤르만 헤세, 토마스 만, 에밀 자벨, 이은상, 최남선 등의 산에 관한 아름다운 산문을 발췌, 수록했다.

평화출판사 / B5 / 90면 / 7000원